

# 미야자와 겐지 『은하철도의 밤』의 일한번역본 출판 현황 연구\*

이예안\*\*  
hinolee@hanmail.net

## <目次>

- |                           |                                  |
|---------------------------|----------------------------------|
| 1. 들어가며                   | 3.3 일한번역본『은하철도의 밤』 출판 현황의<br>문제점 |
| 2. 본론                     | 3. 마치며                           |
| 2.1 『은하철도의 밤』 출판 현황       |                                  |
| 2.2 일한번역본 『은하철도의 밤』 출판 현황 |                                  |

주제어: 초기형 원고(rough draft), 최종형 원고(final draft), 합성본문(edited versions with different plots or characters), 번역자(translator), 일한번역(Japanese-Korean translation)

## 1. 들어가며

『은하철도의 밤(銀河鉄道の夜)』은 미야자와 겐지(宮沢賢治)의 동화이다. 고독한 소년 조반나가 친구 캄파넬라와 은하철도를 여행하는 이야기로 미야자와 겐지 동화의 대표작의 하나이다.

\* 이 논문은 2014학년도 제주대학교 학술진흥연구비 지원사업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제주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한일과 부교수

1) 겐지는 자작(自作)의 제명(題名)을 열거한 메모에 「은하스테이션」「바람의 마타사부로」「폴라노 광장」「구스코 부도리의 전기」 4편을 ‘소년소설’이라고 하고 있다(『가고(歌稿)B』표지메모). 좀 더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면 다른 메모에서는 「포란 광장」「은하철도」「바람의 마타사부로」「구스의 전기 초고 교정」을 들고 있고(「아오키 대학사(青木大學士)의 노숙」초고 뒷면 메모), 「포란」「바람의 부는 들판(風野)」「은하」「구스코」를 ‘장편’으로 묶고(「문어시50편」초고 뒷면 메모) 이들 4작품을 같은 가테고리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신』교본미야자와 겐지전집에 따른다)(賢治は自作の題名を列挙したメモの一つに「銀河ステーション」「風野又三郎」「ポラーノの広場」「グスコブドリの伝記」の4編を「少年小説」として挙げている(『가고(歌稿)B』表紙メモ). やや時代が遡ると見られる別のメモでは、「ポランの広場」「銀河鉄道」「風野又三郎」「グスーの伝記下書直シ」を列挙したり(「青木大学士の野宿」草稿裏メモ)。「ポラン」「風野」「銀河」「グスコ」を「長編」として括ったり(「文語詩五十編」下書裏メモ)しており、これら4作品を同じカテゴリーとみなしていたことがうかがわれる(『新』校本宮沢賢治全集校異による).

『은하철도의 밤』은 일반적으로 초기형(제1-3차 원고)과 최종형(제4차원고) 두 개 형태가 알려져 있다. 그러나 지쿠마쇼보(筑摩書房)에서 출판된 『교본 미야자와 겐지 전집(校本宮沢賢治全集)』 출판 이전에는 각 출판사의 편집자가 편집한 합성본문(合成本文)<sup>2)</sup>이 시장에 나돌아 다닌 사실이 확인되어<sup>3)</sup> 복수의 『은하철도의 밤』이 존재한 사실이 밝혀졌다. 그리고 작자의 죽음으로 작품이 미완성인 채 남겨져서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해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은하철도의 밤』은 세계 각국의 언어로 번역되어 읽혀지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여러 종류의 번역본이 출간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일본에서 복수의 『은하철도의 밤』이 출판된 현황과 여러 종류의 일한번역본 『은하철도의 밤』의 출판 현황과 문제점을 고찰하고자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 2. 본론

### 2.1 『은하철도의 밤』 출판 현황

일본에서 『은하철도의 밤』 출판현황을 보면 초기형, 최종형, 합성본문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초기형과 최종형은 등장인물의 유무 또는 변경, 그리고 이야기의 결말이 다르다.

초기형에는 부르카니로박사가 조반니를 ‘인도’하는 중요한 역으로 등장하고, 조반니는 여행에서 ‘첼로와 같은 소리’를 듣는다. 부르카니로박사는 “모두가 캄파넬라다” “모두가 제각기 자신의 신이 진정한 신이라고 생각한다.(중략) 실험에서 진짜 생각과 거짓 생각을 구별하고 그 실험 방법만 알면 신앙과 과학은 같은 것이 된다.”고 역설한다. 꿈에서 깨어난 조반니는 지금까지의 여행이 전부 부르카니로박사가 행한 ‘최면실험’=‘꿈’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여기에서는 정확히 캄파넬라의 생존 유무는 확인할 수 없다<sup>4)</sup>.

최종형에는 부르카니로박사도 등장하지 않고 부르카니로박사의 ‘실험’ 장면도 없고, 그리고 ‘첼로와 같은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캄파넬라는 시체를 찾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하고

2) 합성본문이란 ‘원문대로’가 아니고 고쳐 쓰거나 재편집하여 출판된 작품을 가리킨다. 한국어에는 없는 말이므로 의미 전달을 순조롭게 하기 위해 일본어 그대로 이 논문에서는 ‘합성본문(合成本文)’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하겠다.

3) 天沢退二郎(1989)「収録作品について」宮沢賢治『新編銀河鉄道の夜』新潮文庫

4) 교본 성립(1972년)까지는 각 출판사에서 출판한 합성본문이 시장에 나돌았다. 초기형이라도 최종형과 혼합(混合)되어 어느 출판사에서 간행된 책을 읽는가에 따라 캄파넬라의 죽음이 명확히 기록되어 있는 버전과 애매한 채 확인할 수 없는 버전이 있다.

조반니는 아버지가 돌아온다는 희소식을 듣는다.

『교본 미야자와 겐지 전집』에 정해진 초기형과 최종형, 가도카와(角川)서점 『쇼와문학전집 (昭和文學全集)』에 수록된 『은하철도의 밤』의 합성본문의 이야기 구성은 다음과 같다.

<초기형>	<최종형>	<1953년 간행·가도카와서점, 합성본문>
켈타우르 축제 (ケンタウル祭) 천기륜 기둥 (天氣輪の柱) 은하역 (銀河ステーション) 북십자와 프리오싱 해안 (北十字とプリオシン海岸) 새를 잡는 사람 (鳥を捕る人) 조반니의 차표 (ジョバンニの切符)	一、 오후수업(午後の授業) 二、 인쇄소(活版所) 三、 집(家) 四、 켈타우르 축제날 밤 (ケンタウル祭の夜) 五、 천기륜 기둥(天氣輪の柱) 六、 은하역(銀河ステーション) 七、 북십자와 프리오싱 해안 (北十字とプリオシン海岸) 八、 새를 잡는 사람 (鳥を捕る人) 九、 조반니의 차표 (ジョバンニの切符)	一、 오후수업(午後の授業) 二、 인쇄소(活版所) 三、 집(家) 四、 켈타우르 축제날 밤 (ケンタウル祭の夜) 五、 천기륜 기둥(天氣輪の柱) 六、 은하역(銀河ステーション) 七、 북십자와 프리오싱 해안 (北十字とプリオシン海岸) 八、 새를 잡는 사람 (鳥を捕る人) 九、 조반니의 차표 (ジョバンニの切符)

가도카와판은 최종형처럼 보이지만 내용은 초기형이 삽입되는 경우가 있어 완전한 최종형의 구성이 아니다. 최종 장면의 다른 부분을 밑줄로 나타내보기로 한다. 최종형은

“캄파넬라, 우리 함께 가자” 조반니가 그렇게 말하면서 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캄파넬라가 앉았던 좌석에는 이미 캄파넬라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중략)힘껏 가슴을 치며 소리 지르고 나서 목청껏 울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깜깜해 진 듯 했습니다.

조반니는 눈을 떴습니다. 원래의 풀이 나 있는 언덕에서 지쳐서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슴은 웬지 뜨겁고 볼에는 차가운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조반니는 용수철처럼 벌떡 일어났습니다. 마을 아래에서는 아까 그대로 수많은 등불을 줄지어 매달아 두고 있었습니다만, 그 빛은 웬지 아까보다 더욱 뜨거워진듯했습니다

「カムパネルラ、僕たち一緒に行かうねえ。」ジョバンニが嘶う云いながらふりかへって見ましたらそのいままでカムパネルラの座っていた席に、もうカムパネルラの形は見えず(中略)力いっぱいはげしく胸をうって叫びそれからもう啞喉いっぱいになきだしました。もうそこらへんがいつぺんにまっくらになったように思いました。

ジョバンニは眼をひらきました。もとの丘の草の中につかれてねむっていたのでした。胸は何だかおかしく熱い頬にはつめたい涙がながれていました。ジョバンニはばねのようににはね起きました。町はすっかりさっきの通りに下でたくさんの灯を綴ってはいましたがその光はなんだかさっきよりは熱したという風でした5。)

로 되어 있다. 가도카와판에서는

“캄파넬라, 우리 함께 가자” 조반니가 그렇게 말하면서 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캄파넬라가 앉았던 좌석에는 이미 캄파넬라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중략)힘껏 가슴을 치며 소리 지르고 나서 목청껏 울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캄캄해 진 듯 했습니다. 바로 그때, “넌 대체 왜 울고 있니? 잠깐 이쪽을 보거라.” 지금까지 자주 들렸던 부드러운 첼로 같은 음성이 조반니의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カムパネルラ、僕たち一緒に行かうねえ。」ジョバンニが斯う云ひながらふりかへつて見ましたら、そのいままでカムパネルラの坐つていた席に、もうカムパネルラの形は見えず(中略)力いっぱいはげしく胸をうつつて叫び、それからもう啞喉いっぱい泣きだしました。もうそこらがーぺんにまつくらになつたやうに思いました。そのとき、「おまへはいつたい何を泣いてゐるの。ちよつとこつちをごらん。」いままでたびたびきこえた、あのやさしいセロのやうな声がジョバンニのうしろから聞えました6。

로 되어있다. 가도카와판에서는 초기형 말미가 삽입되어 있고 초기형과 최종형의 구별 없이 편집되어 있다.

이상이 합성본문의 한 예이다. 이와 같이 합성본문이 등장한 이유에 대해서 오시노(押野)는

작품에 있어서 ‘결말’이란 무엇인가.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니지만 물리적인 의미에서 결말은 반드시 있다. 이야기 내용이 미완성이라 하더라도 책은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면 끝난다. 단, 『은하철도의 밤』이 특이한 것은 원고용지만이 남아있고 더욱이 최후의 페이지를 확정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점이다. 요컨대 ‘결말’이 복수로 병존한다는 것이다.

(作品における<終わり>とは何か。容易に答えられそうにない問いではあるが、物理的な意味での終わりは、書物には必ずある。物語内容が未完であったとしても、その書物は最後のページをめくれば終わる。ただ、「銀河鉄道の夜」が特異なのは、原稿用紙 だけが残され、しかも最後のページを確定するのが困難であるという点である。要するに<終わり>が複数並存してい

5) 宮沢賢治(1989)『銀河鉄道の夜』新潮社, p.217

6) 宮沢賢治(1953)『銀河鉄道の夜』『昭和文学全集14 宮沢賢治』角川書店, p.86

るということだ7)。

라고 주장하고 있다. 결말이 하나가 아니라서, 또는 최종 결말이 어느 것인지 몰라서 각 출판사에서 ‘복수’의 『은하철도의 밤』을 제작하게 된 것이다. 결국 다양한 버전의 『은하철도의 밤』이 시장에 나돌게 되었다. 다시 말하자면 타이틀이 같은 『은하철도의 밤』이라는 책을 읽더라도 어느 출판사가 간행했는가, 어느 시기에 간행되었는가에 따라 이야기의 세부구성이거나 결말 부분이 다른 이야기를 읽을 가능성을 지적할 수 있다.

이처럼 ‘복수’의 『은하철도의 밤』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에 이리사와 야스오(入沢康夫)는

『은하철도의 밤』 중에서도 초기형과 후기형은 상당히 다르지요. 이렇게  
 다르면 별개의 작품으로 읽어도 되겠지요. 물론 어느 한쪽만 읽어도 좋아요.  
 「銀河鉄道の夜」なんかも、初期の形と後期の形では、かなり大きくかわりますからね。それ  
 ぐらい変われば、別々に読んでもいいんじゃないか。もちろん、どちらかだけでもいいし8)。

라고 한다. 이리사와 야스오 주장대로라면 초기형과 최종형, 그리고 합성본문은 각각 『은하철도의 밤』이며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고 ‘다수의 버전을 갖는 이야기’라는 새로운 해석이 가능하다. 그리고 ‘다수의 버전을 갖는 이야기’인 『은하철도의 밤』은 대형 출판사를 중심으로 다수 출판된다.

1972년 이전에는 초기형, 최종형, 합성본문의 구별 없이 출판되었던 것에 반해 교본성립 후 일본 출판사의 출판현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일본출판사가 출판한『은하철도의 밤』의 출판현황(2014/06/15)

책 명	출판사	출판년도	원고 형태	비고
『은하철도의 밤 외 14편 동화집』	이와나미 문고	1951	합성본문	다니카와 데쓰조(谷川徹三)가 교정. 제3차 원고가 혼유한 본문에서 부르카니로 박사가 등장한다.
『은하철도의 밤』	오분사(旺文社)	1981	최종형	
『은하철도의 밤』	고단사(講談社)	1982	최종형	

7) 押野武志(2010)「宮沢賢治「銀河鉄道の夜」のふたつの<終わり>—ザネリのために」『国文学：解釈と鑑賞』75(9)  
 8) 入沢康夫、黒井千次「賢治童話の道程—小説とはならなかった賢治の童話—」『国文学』第27巻 第3号(昭和57年2月号)

『미야자와 겐지 전집 7』	지쿠마 문고	1985	초기형 ·최종형	별도로 제1차-제3차 원고를 수록
『신편 은하철도의 밤』	신초(新潮) 문고	1992	최종형	별도로 신초 문고 『포란 광장』에 제3차 원고를 수록
『은하철도의 밤』	가도카와(角川)문고	1996	최종형	
『미야자와 겐지 「은하철도의 밤」 정독』	이와나미 현대문고	2001	최종형	가마타 도지(鎌田東二)가 제1차에서 제4차 원고를 수록
『쇼와문학전집 제4권』	쇼각관(小学館)	2004	최종형	
『은하철도의 밤』	슈에이사(集英社) <미라이문고>	2014	최종형	

다니카와 데쓰조는 『은하철도의 밤 외 14편 동화집』(1951, 이와나미 문고)의 해설에서 이전 간행본에서는 조반니가 꿈에서 깨어난 부분(현재는 말미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은하스테이션의 장 앞에 삽입되어 있었다. 이렇게 순서를 바꾼 것은 이와나미 문고판 보다 먼저 『미야자와 겐지 동화 전집6』(미야자와 세이로쿠(宮沢清六) 외 편, 1964년, 이와사키서점(岩崎書店))의 증보판에서 이루어졌음을 밝히고 있다. 오분사(1981)는 1960-1987년까지 문고판을 간행했지만 현재는 절판되었다. 고단사(1982)와 슈에이사(2014)에서는 일반인 대상이 아니고 청소년 대상으로 출판하고 있다. 쇼각관(2004)에서는 문고판은 출판하지 않고 『쇼와문학전집(昭和文学全集) 第4巻』으로 출판하고 있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 출판사가 출판한 『은하철도의 밤』의 경우는 초기형, 최종형, 합성본문 중 어느 원고형태를 바탕으로 했는지를 밝히고 있다. 이렇게 원고 형태를 밝힘으로 해서 미야자와 겐지의 『은하철도의 밤』 독자들이 초기형과 최종형, 그리고 합성본문은 각각 『은하철도의 밤』이며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고 ‘다수의 변전을 갖는 이야기’라는 사실을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 2.2 일한번역본 『은하철도의 밤』 출판 현황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 출판사가 출판한 『은하철도의 밤』이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고 ‘다수의 변전을 갖는 이야기’이다. 그러면 일한번역본 『은하철도의 밤』 출판현황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표 2> 일한번역본 『은하철도의 밤』 출판현황(2014/06/15)

책명	번역자	출판사	번역 년도	판본	비고
『은하철도의 밤』	김유영	푸른나무	1997	판본에 대한 기재 없음	9장
『은하철도의 밤』	이선희	바다출판사	2000	『신편 은하철도의 밤 (新編銀河鐵道の夜』 (신조문고, 1997)	9장
『은하철도의 밤』	이선희	바다출판사	2001	판본에 대한 기재 없음	9장
『은하철도의 밤』	김난주	웅진닷컴	2001	『신슈 미야자와 겐지 전집』	9장
『은하철도의 밤』	한성례	현대문학어린이	2002	판본에 대한 기재 없음	9장
『은하철도의 밤』	심종숙	북치는마을	2004	『신슈 미야자와 겐지 전집』 (지쿠마쇼보, 1980)	9장
『은하철도의 밤』	구들(글)	한국퍼킨스	2004	판본에 대한 기재 없음	‘목차’가 없음
『은하철도의 밤』	강성은(글)	여원미디어	2005	판본에 대한 기재 없음	9장
『은하철도의 밤』	박경희	작은책방	2007	『은하철도의 밤(미야자와 겐지 그림 동화집 (13))』 (구몬출판 1993)	9장
『은하철도의 밤』	한성례	맑은소리	2009	판본에 대한 기재 없음	9장
『은하철도의 밤』	고선윤	다락원	2009	판본에 대한 기재 없음	9장
『은하철도의 밤』	정재은 (역음)	한국헤르만헤세	2010	판본에 대한 기재 없음	8장
『은하철도의 밤』	고향옥 이영민	그레이트북스	2011	판본에 대한 기재 없음	9장
『은하철도의 밤』	햇살과 나무꾼	비룡소	2012	『미야자와 겐지전집』	9장
『은하철도의 밤』	심종숙	지식을 만드는 지식	2013	『교본 미야자와 겐지 전집』 1974	9장
『은하철도의 밤』	박종진	여유당	2013	판본에 대한 기재 없음	9장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무엇을 판본으로 해서 번역했는지 밝히지 않는 역서는 김유영역(1997), 이선희역(2001), 한성례역(2002), 구들역(2004), 강성은역(2005), 한성례역(2009), 고선윤역(2009), 정재은역(2010), 고향옥·이영민역(2011), 박종진역(2013)이다. 일한 번역본 『은하철도의 밤』 16권 중에 10권이 판본에 대한 기재가 없음을 알 수 있다.

김선희역(2013) 『미야자와 겐지 걸작선』 안에 『은하철도의 밤』이 게재되어 있지만 내용은 2000년도 출판과 동일하다. 이선희(2000)번역본은 미야자와 겐지의 원작에 가까운 『신편 은하

철도의 밤』(신조문고, 1997)을 번역한 것이며, 본문의 주석도 그에 따랐고 ‘편집자 주’만은 예외라고 서두에서 밝히고 있다. 또한 이선희의 2000년 본에는 삽화가 없는데, 2001년 본은 삽화가 있다. 생각통통 명작문학 『은하철도의 밤』으로 정재은 역임으로 되어 있음을 밝혀둔다. 목차(오후수업, 집, 켄타우로스 축제의 밤, 은하 정거장, 복십자성과 플라이오세 해안, 새집이 아저씨, 조반니의 기차표, 하늘나라로 가는 아이들)를 보면 8장으로 되어 있고 다른 번역본의 목차와 다른 부분이 보인다.

심종숙역(2004)의 ‘웁긴이의 말’을 여기에 인용해 보기로 하겠다.

국내에 미야자와 겐지(宮沢賢治)의 동화 「은하철도의 밤(銀河鐵道の夜)」이 여러 출판사에서 번역 되어 독자들에게 읽히고 있는 가운데 기존의 판본들을 검토하면서 조심스럽게 번역에 손을 대게 되었다.

「은하철도의 밤」은 그 판본이 크게 전집류와 어린이용 문고판 내지는 그림 동화 계열이었다. 어린이 용 문고판 내지 그림동화 계열은 대상이 아동이어서 군데군데 삭제된 곳이 있다. 전집류도 겐지 문학 연구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校本宮沢賢治全集』(筑摩書房, 1973-1977)속의 이 작품은 빠져 있는 부분을 校異에서 보충하고 있으나 본문 내용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新修宮沢賢治全集』(筑摩書房, 1980)의 본문을 텍스트로 하였다. 『新修本』은 1973년에서 1977년에 걸쳐 간행된 『校本全集』(전14권 15책)에 의해 밝혀진 겐지의 문학적 작업의 전모를 기반으로 하여 일반 독자들의 겐지의 문학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재정리, 재편집한 것이다. 이 책의 장점은 『校本全集』의 본문에서 빠져 있는 부분-예를 들어, 이야기 끝부분의 부르카니로 박사와 조반니의 대화 장면-을 그대로 살리고 있다는 점이다. 부르카니로 박사가 신앙과 과학의 일치를 말하는 부분에서 작가 겐지의 사상을 엿볼 수 있다. 그리고 환상 여행의 전 중반부에 나오는 ‘낮익은 목소리’ ‘부드러운 음성’ ‘첼로 같은 소리’는 부르카니로 박사로 음성만 들려주므로 신비감과 호기심을 자아내고 있고, 이 동화의 입체적 구성을 돋보이게 하는 설정이라 생각된다. 끝부분에서 조반니 앞에 모습을 나타내고 어린 조반니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부르카니로 박사는 작가 겐지로 보아도 무방하다. 그러므로 『新修本』의 본문은 초기형 원고를 채택하고 있고 분량상 겐지가 의도한 ‘장편’ 또는 ‘소년소설’에 부합되고 있으면서 내용상 완결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끝으로 이 작품에 나오는 용어들에 관해서는 겐지 문학 연구의 권위자인 하라시로오(原子郎)박사의 『新修宮沢賢治語彙辭典』(東京書籍, 1999.7)을, 보석류에 관해서는 이타타니 에이조오(板谷榮城)의 『宮沢賢治寶石の図誌』(平凡社, 1994)를, 성좌에 관해서는 안상현의 『우리 별자리(동양)』(현암사, 2000)를 참고했음을 밝혀둔다.

심종숙역(2004)은 초기형 원고를 채택한 『신슈 미야자와 겐지 전집』(지쿠마쇼보, 1980)본문을 텍스트로 하였고, 기존의 판본들을 검토하여 기존의 그림동화나 문고판류에서 빠져 있는 부분을 보충했음을 밝히고 있다.



햇살과 나무꾼(2012)역 <웁긴이의 말>을 인용해 보기로 하겠다.

.....이 작품이 맨 처음 책의 형태로 출간된 것은 그가 세상을 떠난 이듬해인 1934년 『미야자와 겐지 전집』(총3권)속에 수록되면서였다. 은하 철도의 밤은 4차 원고까지 있지만, 1,2차 원고는 대부분 분실되어 부분적으로만 남아 있고 3차 원고와 이것을 대폭 수정하고 앞뒤에 새로 내용을 덧붙인 4차원고(최종형)가 남아 있다. 「은하 철도의 밤」을 이야기할 때는 대부분 최종형을 일컫고 문학적으로도 최종형이 가장 완성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4차 원고에서는 그 이전 원고와 달리 부르카니로 박사가 등장하지 않고, 3차 원고에는 없었던 은하에 관한 수업 장면, 조반니가 인쇄소에서 새롭게 배치되어 조반니의 고독하고 힘든 상황과 단짝 캄파넬라와의 거리감이 자세히 드러나며, 조반니가 꿈에서 깨어 다시 마을로 내려갔을 때 캄파넬라가 강에서 실종되어 죽었음이 밝혀지는 설정 등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이 책은 미야자와 겐지 연구의 권위자인 아마자와 다이지로와 겐지의 친동생으로 겐지 원고의 보존과 정리에 힘써 온 미야자와 세이로쿠 등이 편집한 『미야자와 겐지 전집』을 판본으로 번역했음을 밝혀둔다. 이 판본은 원본이 미완성인 채로 작가가 숨졌기 때문에 한 작품 안에서 서로 모순되는 부분이나 맥락이 닿지 않는 부분을 최대한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정리한 것이다.

햇살과 나무꾼번역본에서 미야자와 겐지의 『은하철도의 밤』의 연구논문 검토를 하여 『미야자와 겐지 전집』을 판본으로 번역했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점은 번역자로서의 역할이 무엇인지가 잘 나타나 있다고 볼 수 있다.

심중숙(2004)본은 초기형 원고를 채택한 『신슈 미야자와 겐지 전집』(지쿠마쇼보, 1980) 본문을 텍스트로 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햇살과 나무꾼역(2012) <웁긴이의 말>에서처럼 『은하철도의 밤』은 4차 원고까지 있게 된 배경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없지만 『은하철도의 밤』의 연구논문을 검토하고 번역에 임했음을 알 수 있다.

일한번역본『은하철도의 밤』 출판현황을 살펴본 결과 『은하철도의 밤』이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고 ‘다수의 변전을 갖는 이야기’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은 16권의 역서 중에 1권(햇살과 나무꾼역, 2012) 뿐이다. 그렇지만 무엇을 판본으로 했는지를 밝히지 않은 일한 번역본 『은하철도의 밤』 경우 어느 출판사에서 출판 되었는가 번역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이야기의 세부구성이나 결말부분이 다를 수 있다.

### 2.3 일한번역본 『은하철도의 밤』 출판 현황의 문제점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 출판사가 출판한『은하철도의 밤』은 초기형, 최종형, 합성본문

중 어느 원고형태를 바탕으로 했는지를 밝히고 있어서 독자들이 초기형과 최종형, 그리고 합성본문은 각각 『은하철도의 밤』이며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고 ‘다수의 변전을 갖는 이야기’라는 사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표2)일한번역본 『은하철도의 밤』 출판현황에서는 16권의 번역본 중에 1권만이 원고 형태에 대한 언급이 있어 독자들이 초기형과 최종형, 그리고 합성본문은 각각 『은하철도의 밤』이며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고 ‘다수의 변전을 갖는 이야기’라는 사실을 쉽게 이해하기는 어렵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점과 관련하여 일한번역판 『은하철도의 밤』 출판 현황을 구체적으로 역서들의 본문 내용을 비교하면서 문제점을 고찰해 보기로 하겠다.

우선 일한번역본 『은하철도의 밤』 이야기 내용이 다른 부분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무엇을 판본으로 했는지에 대해 밝히고 있지 않는 김유영역(1997)에서 ‘캄파넬라의 아버지이기도 한 박사’가 조반니를 ‘인도’하는 중요한 역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 부분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내용이 다른 부분을 밑줄을 그어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이제 사방이 온통 캄캄해졌습니다. 그 때 이제까지 가끔씩 들려 왔던 신비한 음악 소리와 함께 자상한 말소리가 조바니의 뒤에서 들렸습니다.

“너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울고 있니? 잠깐 이 쪽을 봐라.”

조바니는 깜짝 놀라 눈물을 닦고 그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캄파넬라가 앉아 있던 자리에는 커다란 검은 모자를 쓴 야윈 얼굴의 어른이 부드럽게 웃고 있 었습니다. (중략)그 음악 소리가 들리는가 했는데 조바니는 어느 샌가 자기가 마을 뒤 언덕 위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은하수는 저 멀리 밤 하늘에 조용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차가운 하늘 위로 흘러가고, 그 바람 소리에 섞여 멀리에서 박사의 목소리가 조용히 들려 왔습니다.

“네게 고맙구나. 대단히 좋은 실험을 했다. (중략) 그 목소리는 캄파넬라의 아버지인 박사의 목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심중숙역(2004)은 초기형 원고를 채택한 『신슈 미야자와 겐지 전집』(지쿠마쇼보, 1980)본문을 텍스트로 하였다고 역자서문에서 밝히고 있다. 즉 심중숙역(2004)에는 초기형에만 보이는 조반니에게는 여행에서 ‘첼로와 같은 소리’가 들리는 장면’과 ‘부르카니로박사의 최면실험’ 장면이 추가 되어 있다<sup>9)</sup>. 이에 해당하는 장면을 소개하고 김유영역(1997)과 비교해 보기로 하겠다.

9) 필자가 조사한 바로는 김유영역(1997)과 심중숙역(2004)에서만 초기형에 보이는 조반니에게는 여행에서 ‘첼로와 같은 소리’가 들리는 장면’과 ‘부르카니로박사의 최면실험’ 장면이 추가 되어 있다.

순식간에 깜깜해 진 듯 했습니다. 바로 그 때,

“넌 대체 왜 울고 있니? 잠깐 이쪽을 보거라.”

지금까지 자주 들렸던 부드러운 첼로 같은 음성이 조반니의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조반니는 깜짝 놀라서 눈물을 닦고 그쪽을 돌아보았습니다. 캄파넬라가 앉아 있었던 자리에 큼직한 검은 모자를 쓴 창백하고 야윈 얼굴의 어른이 부드럽게 웃으며 큰 책 한 권을 들고 있었습니다(중략). 첼로 소리가 났다고 생각하자, 조반니는 이제 은하수가 멀어져 바람이 불고 자신은 곧 풀이 나 있는 언덕 위에 서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멀리서 그 부르카니로 박사의 고요한 발자국 소리가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고맙구나. 나는 아주 좋은 실험을 했단다. 난 이런 조용한 곳에서 나의 생각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실험을 하고 싶었지(중략). 그리고 그 모습은 천기륜 기둥의 건너편에서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위의 김유영역(1997)과 심중숙역(2004)의 인용 부분을 비교해 큰 줄거리에서는 차이를 보이지는 않고 있다. 단, 김유영역에서는 음악소리, 박사라는 부분을 심중숙역에서는 첼로 같은 음성, 부르카니로 박사로 표현하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차이점에서 생각한다면 심중숙역(2004)은 초기형 원고를 채택한 『신슈 미야자와 겐지 전집』(지쿠마쇼보, 1980)본문을 텍스트로 하였다고 역자서문에서 밝히고 있는 것을 근거로 생각한다면, 김유영역(1997)이 초기형 원고를 채택한 판본을 선택해서 번역했다고 생각하기 어렵다.

초기형에는 정확히 캄파넬라의 생존 유무는 확인할 수 없는데 반해, 최종형에는 부르카니로 박사도 등장하지 않고 부르카니로박사의 ‘실험’도 행해지는 장면이 없고, 그리고 ‘첼로와 같은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캄파넬라는 시체를 찾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하고 조반니는 아버지가 돌아온다는 희소식을 듣는다. 그 다음 마지막 장면을 일한번역본 『은하철도의 밤』을 비교해 보기로 하겠다.

### 김유영역(1997)에서

조반니는 여러 가지 생각으로 가슴이 메어졌습니다. 그러나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조반니는 빨리 어머니에게 우유를 가져다 드리고 아버지가 돌아온다는 것을 알려 주어야겠다고 생각하자, 쏟아질듯이 마을 쪽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조반니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였습니다. 가로등이랑, 창문으로 비추는 불빛이랑, 나무에 걸어 놓은 장식 등불들이 희미하게 꿈처럼 보일 뿐이고, 도대체 자기가 어디를 달리고 있는 것인지, 어디로 달리고 있는 것인지조차 모르고 조반니는 계속 달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샌가 그 목장 뒤를 지나 아까 왔었던 언덕 위에 서 있었습니다.

조바니는 풍차 기둥과 은하를 글썽거리는 눈으로 멍하게 바라보면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기차 바퀴 소리가 멀리에서 들려 왔습니다. 그 소리는 점점 높아졌다가 멀리 사라져 갔습니다. 누군가가 기차 소리와 똑같은 박자로 노래 부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우주 일주의 노래였습니다. 누군가가 반복해서 반복해서 부르는 그 노래를 조바니는 황홀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이선희역(2001)<sup>10)</sup>에서는

조바니는 너무나 많은 일들이 가슴을 가득 메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시라도 빨리 우유를 가지고 가서 엄마에게 아빠가 돌아오신다는 소식을 전해주려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쏠살같이 마을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김난주역(2001)과 심종숙역(2004, 2013), 박경희역(2007), 한성례역(2009), 고선윤역(2009), 정재은역(2010), 고향옥·이영민역(2011), 햇살과 나무꾼역(2012), 박종진역(2013)은 표현상의 차이가 있을 뿐 줄거리는 이선희역(2001)과 같다.

김유영역(1997)의 위의 인용 부분의 밑줄 친 곳이 다른 일한번역본 『은하철도의 밤』에는 없다. 김유영역(1997)에서는 ‘박사’도 등장하고 ‘박사’의 ‘실험’도 행해지는 장면도 있고, 그리고 ‘음악 소리’도 들린다. 그리고 캄파넬라는 시체를 찾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하고 조바니는 아버지가 돌아온다는 희소식을 듣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초기형 원고 형태와 최종형 원고 형태의 내용이 모두 들어 있고, 맨 마지막 장면에는 다른 번역본에서는 없는 내용이 추가 되어 있다.

김난주역(2001)에서 다른 일한번역본 『은하철도의 밤』에는 없는 ‘박사’의 ‘실험’도 행해지는 장면과 ‘음악 소리’가 들리는 장면이 왜 추가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 또한 심종숙역(2004, 2013)에서도 초기형 원고를 채택한 『신슈 미야자와 겐지 전집』(지쿠마쇼보, 1980)본문을 텍스트로 하였고, 기존의 판본들을 검토하여 기존의 그림동화나 문고판류에서 빠져 있는 부분을 보충했음을 밝히고 있지만 『은하철도의 밤』이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고 ‘다수의 변전을 갖는 이야기’라는 사실을 독자들이 이해하기는 어렵다. 그 외 3명의 번역자(이선희, 김난주, 박경희)가 판본을 명기하고 있지만 『은하철도의 밤』이 ‘다수의 변전을 갖는 이야기’라는 사실을 독자들이 알 수 없다고 본다.

일한번역본 『은하철도의 밤』 출판현황을 살펴본 결과 『은하철도의 밤』이 ‘하나의 이야기’가

10) 이선희는 『미야자와 겐지결작선』(바다출판사, 2013)에 『은하철도의 밤』을 출판하나 2000년도 출판과 동일하다.

아니고 ‘다수의 변전을 갖는 이야기’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은 16권의 역서 중에 1권(햇살과 나무꾼역, 2012) 뿐이다.

### 3. 마치며

일본 출판사가 출판한 『은하철도의 밤』은 초기형, 최종형, 합성본문 중 어느 원고형태를 바탕으로 했는지를 밝히고 있어서 독자들이 초기형과 최종형, 그리고 합성본문은 각각 『은하철도의 밤』이며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고 ‘다수의 변전을 갖는 이야기’라는 사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일한번역본 『은하철도의 밤』 출판현황에서는 16권의 일한번역본 『은하철도의 밤』 중에 6권이 판본에 대한 기재가 있다. 또한 한국에서 『은하철도의 밤』이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고 ‘다수의 변전을 갖는 이야기’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은 16권의 역서 중에 1권(햇살과 나무꾼역, 2012) 뿐이다. 일한 번역본 『은하철도의 밤』 경우 어느 출판사에서 출판 되었는가 번역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이야기의 세부구성이나 결말부분이 다른 이야기가 출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하철도의 밤』이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고 ‘다수의 변전을 갖는 이야기’라는 사실을 설명한 번역서가 16권의 역서 중에 1권뿐이라는 출판현황에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

독자를 염두에 둔 출판이라면 다양한 버전을 가진 『은하철도의 밤』이라는 작품이 시장에 나돌게 된 배경 설명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시 말하자면 타이틀과 저자가 같은 『은하철도의 밤』이라는 책을 읽더라도 어느 출판사에서 간행했는가, 어느 시기에 간행되었는가에 따라 이야기의 세부구성이나 결말부분이 다른 이야기를 읽을 가능성을 지적할 수 있다. 또한 문학 번역작품을 번역할 경우는 번역자는 햇살과 나무꾼(2012)의 번역자처럼 연구논문 검토를 통해 작품의 세계를 정확히 독자들에게 전달하려는 의식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 【參考文獻】

入沢康夫·黒井千次「賢治童話の道程—小説とはならなかった賢治の童話—」『国文学』第27巻 第3号(昭和57年2月号)  
押野武志(2010)「宮沢賢治『銀河鉄道の夜』のふたつの<終わり>—ザネリのために」『国文学：解釈と鑑賞』75(9)  
天沢退二郎(1999)「収録作品について」宮沢賢治『新編銀河鉄道の夜』新潮文庫  
宮沢賢治(1989)『銀河鉄道の夜』新潮社  
\_\_\_\_\_ (1953)「銀河鉄道の夜」『昭和文学全集14』角川書店

宮沢賢治(1982)『校本宮沢賢治全集』筑摩書房

**【용례 출전】**

谷川徹三編(1951)『銀河鉄道の夜 他十四編 童話集』岩波書店<岩波文庫>

『銀河鉄道の夜』(1981)旺文社

『銀河鉄道の夜』(1982)講談社

『宮沢賢治全集 7』(1985)筑摩書房<ちくま文庫>

『新編銀河鉄道の夜』(1992)新潮社<新潮文庫>

『銀河鉄道の夜』(1995)角川書店<角川文庫>

鎌田東二『宮沢賢治『銀河鉄道の夜』精読』(2001)岩波書店<岩波現代文庫>

『昭和文学全集 第4巻』(2004)小学館

『銀河鉄道の夜』(2014)集英社

김유영역(1997)『은하철도의 밤』푸른나무

이선희역(2000)『은하철도의 밤』바다출판사

이선희역(2001)『은하철도의 밤』바다출판사

김난주역(2001)『은하철도의 밤』웅진닷컴

한성례역(2002)『은하철도의 밤』현대문학어린이

심중숙역(2004)『은하철도의 밤』복치는마을

구들역(2004)『은하철도의 밤』한국퍼킨스

강성은역(2005)『은하철도의 밤』여원미디어

박경희역(2007)『은하철도의 밤』작은책방

한성례역(2009)『은하철도의 밤』맑은소리

고선윤역(2009)『은하철도의 밤』다락원

정재은역(2010)『은하철도의 밤』한국헤르만헤세

고향옥·이영민역(2011)『은하철도의 밤』그레이트북스

햇살과 나무꾼(2012)『은하철도의 밤』비룡소

심중숙(2013)『은하철도의 밤』지식을 만드는 지식

박중진(2013)『은하철도의 밤』여유당

---

논문투고일 : 2014년 06월 10일

심사개시일 : 2014년 06월 20일

1차 수정일 : 2014년 07월 09일

2차 수정일 : 2014년 07월 15일

게재확정일 : 2014년 07월 20일

---

〈要旨〉

미야자와 겐지 『은하철도의 밤』의 일한번역본 출판 현황 연구

본고에서는 일본에서 복수의 『은하철도의 밤』이 출판된 현황과 여러 종류의 일한번역본 『은하철도의 밤』의 출판 현황과 문제점을 고찰해 보았다.

일본 출판사가 출판한 『은하철도의 밤』은 초기형, 최종형, 합성본문 중 어느 원고형태를 바탕으로 했는지를 밝히고 있어서 독자들이 초기형과 최종형, 그리고 합성본문은 각각 『은하철도의 밤』이며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고 ‘다수의 변전을 갖는 이야기’라는 사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일한번역본 『은하철도의 밤』 출판현황을 살펴본 결과 『은하철도의 밤』이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고 ‘다수의 변전을 갖는 이야기’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은 16권의 역서 중에 1권(햇살과 나무꾼역, 2012) 뿐이다. 그렇지만 무엇을 판본으로 했는지를 밝히지 않은 일한 번역본 『은하철도의 밤』 경우도 어느 출판사에서 출판 되었는가 번역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이야기의 세부구성이거나 결말부분이 다른 이야기가 출판되었다.

독자를 염두에 둔 출판이라면 다양한 버전을 가진 『은하철도의 밤』이라는 작품이 시장에 나돌게 된 배경 설명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문학번역작품을 번역할 경우는 번역자는 햇살과 나무꾼(2012)의 번역자처럼 연구논문 검토를 통해 작품의 세계를 정확히 독자들에게 전달하려는 의식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A Study on the Various Currently Published Korean Translations of “Night on the Galactic Railroad” by Kenji Miyazawa

This document covers the multiple Japanese versions of “Night on the Galactic Railroad” currently available in Japan, the different Korean translations of these books available in Korea, and the problems regarding the publishing of said translations.

The Japanese versions of “Night on the Galactic Railroad” published by major Japanese publishers state what type of source text among the rough draft, the final draft, and the edited versions that they are based on. It helps readers easily understand that the said book doesn’t have only one story but has multiple versions.

Of the 16 different Korean translations of “Night on the Galactic Railroad”, the information that the story has more than one version is mentioned in only one translation, published by Sunlight and Woodcutter in 2012. However, the other translations have different plots or endings depending on by whom they were translated or by which company they were published.

A reader-oriented Korean translation of “Night on the Galactic Railroad” should provide background information on the multiple versions currently available on the market. It is also required that a literary translator review research papers to help readers understand the literary work most accurately, just as the translator of the Sunlight and Woodcutter version did.